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7년 12월 15일 발행(190호)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안경사 구인구직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05 ISSUE

대안협이 현재까지 안경원 장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회원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

06 NEWS IN NEWS

의료기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경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12 INSIDE

부산세관이 가짜 안경 판매업자를 적발 조사한 결과, 안경원에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경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BAUSCH + LOMB 바슈롬

렌즈, 수분을 꼭 잡아야 한달이 편안해진다!



더욱 부드러워진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로 한달 동안 편안하게!¹

높은 수분 결합력의 PVP성분으로 하루 종일 촉촉하게!¹

빛 번짐을 줄여주는 광학설계와 건조방지로 깨끗하고 선명하게!²

모이스처씰[MoistureSeal™]기술로 놀라운 편안함을 제공하는

바슈롬 울트라™

실 리 콘 하 이 드 로 겔 콘 택 트 렌 즈



Reference:
1-1. Journal of Biomedical Optics | Volume 11 | Issue 4 | Special Section on Pioneers in Biomedical Optics, A.J. Welch Published September 01, 2006 1-2. The 2014 Global Specialty Lens Symposium | Scientific and Clinical Poster Archive | Clinical Performance of a Novel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 with Optimized Chemical and Physical Attributes | August, 2014 2-1. New Technology Yields Dehydration Resistance By R. Stelfen, O.D., M.S., D. Hook Ph.D., J. Schaller, O.D., M.S., F.A.O., I. Nufiez, Ph.D. 2-2. Changes in Predicted LogMAR Image Resolution During Dehydration of Silicone Hydrogel Contact Lenses By Paul D. Ludington M.S., Kristen K. Hovenga M.S., Mohinder Merchea, O.D., Ph.D., M.B.A., F.A.O., F.B.C.L.A. Bausch + Lomb Inc., Rochester, NY 2-3. Data on 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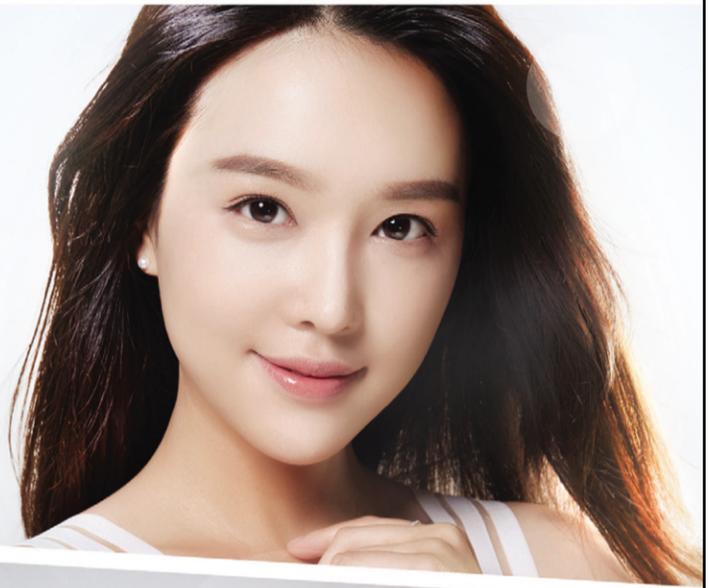


렌즈매니저 2018.01 메이러브 라인업 출/시/예/정

COMFORTABLE FOR A MONTH

MAY LUV

메이러브 클리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3 CON

메이러브 3 CON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메이러브 데일리
1-month/ 1pack 2pcs



메이러브는 (주)안경매니저에서 새롭게 런칭한 콘택트렌즈 전문샵 렌즈매니저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렌즈매니저
가맹 상담중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일부 상권 별도 책정
아이피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	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 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 장 010-9424-5438
전 남	· 전 북	노용선	팀 장	010-3092-9239	
대 전	· 경 상 도	노장호	팀 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



안경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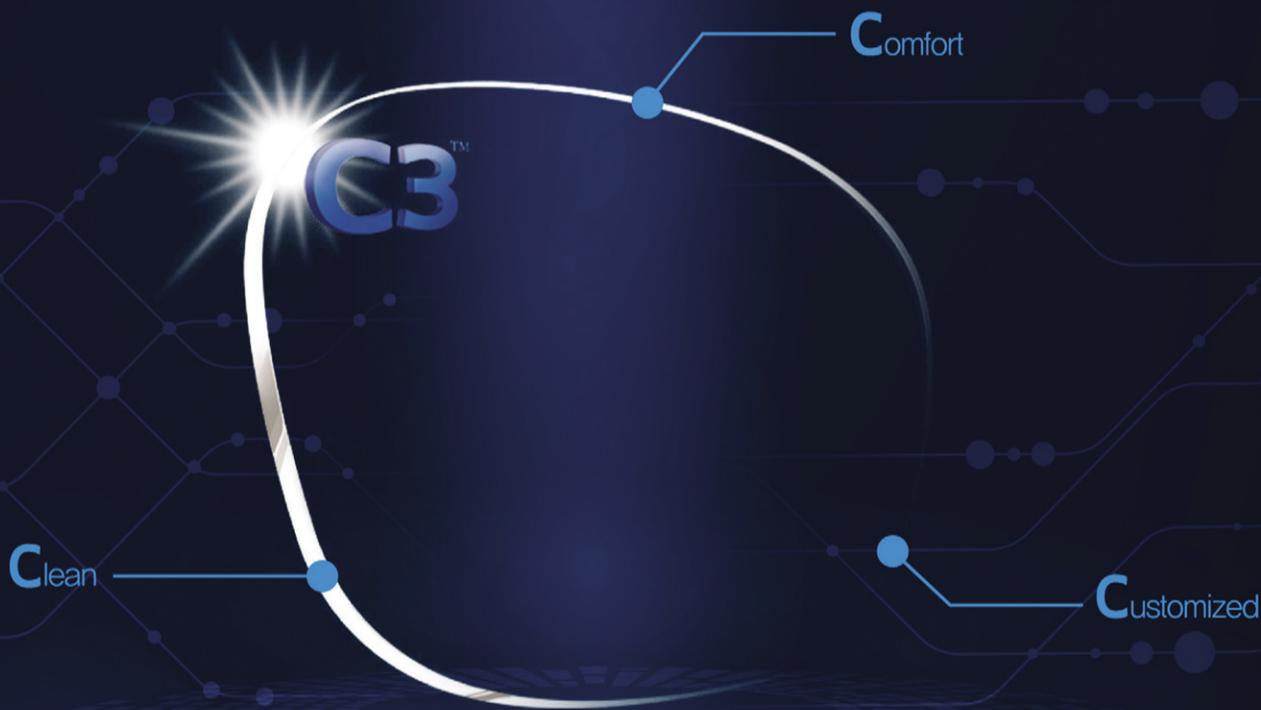
씨채널안경



C3TM Clear Vision, Better Life
안경렌즈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맞춤형 양면 비구면 렌즈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C3TM 개인별 완전 맞춤형
양면비구면렌즈
Comfort / Clean / Customized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확보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전,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서재에서

중간 길에서

차에서

나는 변색렌즈 트랜지션스를 쓴다

지금 **변색렌즈 트랜지션스** 를 검색하세요!

에실로 트랜지션스 BIG 캠페인

골드바 이벤트

1

트랜지션스를 알려라!

기간 2017년 6월 1일 ~ 12월 31일

변색렌즈 트랜지션스를 알리면 순금 골드바가 팡팡!

내용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매달 트랜지션스 매출 1위를 달성한 안경원을 선정해 골드바 5돈을 드립니다.

(*중복참여 불가 / 총 7개 안경원 선정)

※발표: 매달 익월 10일에 선정 및 개별 연락



해외여행 이벤트

2

트랜지션스 Best Sales! 나야 나!

기간 2017년 6월 ~ 12월

트랜지션스 판매왕 달성하면, 해외여행상품권이 팡팡!

내용 프로모션 기간 중 트랜지션스 최고 매출을 달성하신

1개 안경원을 선정하여

2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발표: 2018년 1월 중순에 선정 및 개별 연락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 또는 에실로 코리아 고객센터(1600-81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www.aoa.co.kr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오아

미미상사 02.333.1123

ASAHI 1.67 / 1.74 양면바구면 UV 퍼펙트 출시!

안경렌즈에 생명을 붙여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붙여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러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ASAHI-LITE JAPAN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안경원 장비 빼앗긴 협회... 3년째 뒷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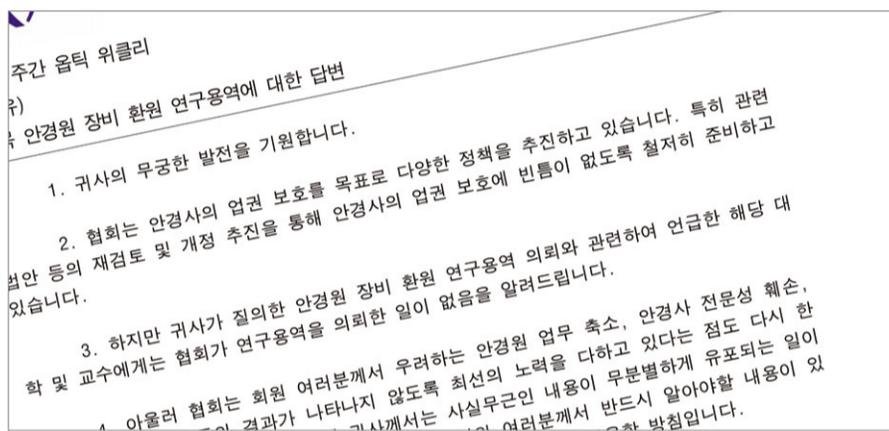
의기법 시행규칙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 잃고도 3년간 허송세월... 당시 책임있는 집행부 리더들은 회원 분열 조장하는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열중

대한안경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경사협회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안경원 장비를 다시 입법화시키는데 3년째 허송세월을 보내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은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삭제된 2015년 2월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경원의 삭제된 9가지 장비는 올해 2월 2일자로 법적 제한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시 입법화시킬 수 있는 상태다.

지난 11월 본지의 질의에 대안협은 스스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안협은 장비 입법화 추진을 묻는 본지의 질의에 '협회는 안경사의 업권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안 등의 재검토 및 개정 추진을 통해 안경사의 업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했다. 이에 본지가 재차 '지난 1년간 안경원 장비 환원과 관련해 협회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대안협은 현재까지 무응답 상태다.

한때 장비 복원에 대한 대안협의 움직임이 감지되기는 했다. 올해 초 대안협이 상임이사회에서 장비 환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모 안경광학과 교수에게 의뢰하고, 이 연구물을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본지가 해당 교수와 대안협에 문의한 결과 양측 모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담당관도 "올해 대안협으로부터 안경원 장비 환원과 관련해 어떠한 연구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경원의 장비를 다시 시행규칙에 입법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 담당관은 장비의 입법화를 묻는 본지에 '삭제된 안경원 장비를 입법화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장비를 삭제한 복지부가 이제는 안경원 장비의 입법화를 '규제개혁'이라는 울타리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래한 1



▲ 지난달 대한안경사협회가 본지에 발송한 '안경원 장비환원 관련 공문'의 일부. 이 발송문에서 대안협은 ▶ 장비 환원 관련 법안 등의 재검토 및 개정 추진을 통해 안경사의 업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 안경원 장비 환원 연구용역 의뢰와 관련하여 언급한 해당 대학 및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이 없다 ▶ 사실무근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적고 있다.

말로만 추진하고 움직임은 전무 안경원의 장비... 법적 근거 취약

백여 년 전부터 국민의 시력 보전을 위한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엉뚱하게 '새로운 규제'에 묶여 입법화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북안경사회의 한 대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19대 집행부는 아직도 복지부의 의중도 모르고 장비를 더 좋게 찾아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 장비 삭제 원인으로 단독법 꼬아

최근 안경사들은 안경원 장비가 삭제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법개정을 방지했던 대안협 지도급 인사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장비 삭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방지한 당시 대안협의 리더들이 수개월 전부터 일반 안경원과 경쟁이 불가피한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사 업권에 피해를 끼친 지도자급 인사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조합을 결성해 회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시각이다. 사실상 많은 안경사들은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당한 주요 원인이 당시 대안협 집행부가 안경사단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보다 명확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경 대안협의 협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복지

만 되풀이했다"며 "더구나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장비를 빼앗긴 당사자들이 회원에게 잘못을 구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들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회원을 분열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비 삭제 이후 서류만으로 안경원 개설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되면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영업권이 급격히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비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2년여 전부터 장비 없이도 안경원 개설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콘택트 전문점이나 공테 매장이 마구잡이로 오픈되어 안경원의 영업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2월 이후 안경원 개설은 안경사면허증 사본과 개설등록 신청서, 사업장 도면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보건소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한 후 개설 등록이 나왔지만, 지금은 서류 제출만으로도 등록이 나올 정도로 허술해진 것이다.

서울 K구 보건소 보건의료과의 담당자는 "안경원 등록은 장비 개요소만 제출하면 상관없다. 의기법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에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라는 자구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임의적으로 장비를 마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의기법에 안경원 장비가 명문화되어 있을 때는 개설 등록 시에 보유 장비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장비가 없어도 안경원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원 장비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일 때 안경원 개설 등록이 나오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며 "그러나 진짜로 우려되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 등이 안경원의 검안기와 장비를 무슨 근거로 설치했느냐고 따질 경우 현재의 안경원은 법적으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걱정했다.

전국의 회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가 하루빨리 명문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협동 취재반

Tip. 안경원의 장비 재개정... 올해 2월 3일부터 가능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15조 2항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 2015년 2월이다. 이에 따라 장비를 다시 입법화하려면 동법 부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에 의거해 만 2년이 지난 날부터 개정할 수 있다. 즉 장비가 삭제된 2015년 2월 2일의 만 2년이 지난 2017년 2월 3일부터는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협은 장비가 삭제된 2015년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비 복원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특특

■ "예전엔 연말 분위기로 매출이 조금 올랐는데 이젠 이마저도 없군요. 한겨울 맹추위에 진땀 납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

■ "어느 체인에서 누진렌즈 반값 할인한다고 육했었는데, 이젠 대다수가 반값 판매합니다. 안경 가격, 정말 추풍낙엽이군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

대안협, 법정단체 시대 본격 개막

국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위원회 권한으로 국회 통과 대안협에 윤리위원회 설치 가능... 의료기사의 단체 의무가입은 삭제

국내 의료기사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 등 3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이를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지난달 말에 의결했다. 이는 곧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권한

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양승조 의원의 의기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원회의 대안을 보면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또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도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기법 제16조가 대폭 수정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의료기사 단체의 법정단체화 ▶중앙회 내에 윤리위원회 구성 등이다.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사 등에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 보건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다만 개정안 원문에 있었던 의료기사의 중앙회 의무 가입

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법안심사소위의 대안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지금까지 대한안경사협회는 사실상 임의단체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이로써 향후 안경사가 의료인으로 격상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과대광고 자제 등 윤리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내년 후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

문의 02)788-2412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신규문표 비교

현행	개정안
제16조(협회) ①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회)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중앙회-----
③ 삭제	③ 중앙회-----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정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개정안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해당 페이지 화면.

중국산 짝퉁 선글라스 적발

부산경찰,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짝퉁 안경 백화점과 아울렛 등 10곳에 판매한 박모 씨 적발

중국산 저가 선글라스를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로 둔갑시켜 대형 백화점과 아울렛에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선글라스 제조·유통업체 대표인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중국산 저가 선글라스 1천 1백여장(시가 8천만원)을 항공우편 등을 통해 반입한 뒤 브랜드와 원산지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씨는 중국산 선글라스를 위조해 납품해도 매장에서 알아채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와 거래한 곳은 대형 백화점 9곳을 비롯해 아울렛 등 모두 10곳이 넘고, 장당 4천원에서 1만원에 들여온 중국산 선글라스는 5~7만원에 납품해 최종 소비자는 최대 10만원에 가짜 선글라스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제품은 안경원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판매한 백화점과 아울렛 업주들은 피해 고객에게 환불이나 교환해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짝퉁 선글라스.

포토뉴스

안경원 블랙 프라이데이는 변종 '가격파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된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블프)와 때를 맞춰 국내 유통업체 일부가 유사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저마다 세일 판촉행사를 벌인 이 행사에서 일부 안경원들은 '동글이테+압축렌즈=2만5천원, 고급

테+수입렌즈=6만원, 고급안경 구입 시 콘택트렌즈 무료 증정' 등의 폭탄세일을 벌여 일선 안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국의 최대 할인행사인 블프의 개최 취지는 올해 구입한 상품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남은 재고품을 추수감사절 직후에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행사로서 국내 안경원의 가격파괴 세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부 안경원이 블프를 이용해 파격세일을 벌이는 것은 또 하나의 가격파괴 행위로서 오히려 소비자 불신을 조장하며 업계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안경원이 참여하는 블프, 안경의 가격파괴 행사가 아닌 재고품을 소진하는 미국의 진정한 블프 행사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정밀하게
아니면
말하지 말라 //

정밀함은 위대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약속입니다.
Seiko는 누구보다 정밀한 안경렌즈의 생산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정밀함을 선사하는 약속
이 정밀함을 경험해 보세요.

SEIKO

PRECISION FOR VISION

社說

2018년은 안경을 사랑하는 해

여운이라는 가수가 부른 '과거는 흘러갔다' 라는 유행가가 있다. 젊을 때 길거리에서 가끔 들던 노래 가사가 연말과 겹치며 느닷없이 기억되었다. 이 가사는 '즐거웠던 그 날이 올 수 있다면...(중략) 아무리 뒤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로 되어 있다. 이 가사는 개인적으로도 소회(所懷)가 있지만, 현재의 안경계와도 비슷하다. 안경계의 즐거웠던 날들이 지금은 과거 속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생사든 국가나 산업이든 탄생이 있으면 쇠퇴기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학자들로부터 논란을 받은 이론이지만 영국의 역사학자 A. 토인비는 문명의 발전이 탄생→성장→쇠퇴→해체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도 했다. 지금 안경계가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보면 안다.

올해 안경계는 특별한 성과 없이 세월에 떠밀려 과거로 빠져들고 있다.

안경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내세운 안경체인이 다수 등장해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안경 조제료와 수리비 추진도 공정의 엄포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걱정스럽고 속상한 일만 벌어진 곳이 올해 안경계이다. 더구나 대한협은 올해 2월, 정확히 2월 3일부터는 그 어떤 사업보다 안경원의 잃어버린 9가지 장비를 찾는데 매진해야 하는데 '더 좋게 찾아오겠다'는 말의 성찬만 늘어놓을 뿐 움직임을 없다. 국내 교수들이 2017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정한 '멀리 내다보려면 높이 올라야 한다'는 강상

일루(更上一樓)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내려간 곳이 안경계이다.

더구나 올해 안경사협회는 8명의 부회장들이 협회장을 불신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마치 국내 교수들이 협회의 미래를 예측이라도 하듯이 2016년을 사자성어로 정한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로서 물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상황이 2017년 안경사협회에 벌어졌던 것이다.

영국인이 존경하는 처칠 수상은 허영심 많고 유아독전형의 단점이 많은 인물이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술꾼에 고집불통이라는 많은 단점에도 국민에게 존경받는 것은 각양각색의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처칠은 2차 대전의 암울함 속에서도 국민에게 가시밭길을 지나면 꽃길이라고 희망을 주었고, 전세가 불리해도 흔들림 없는 용기로 승리를 외쳤다. 지금의 안경계 상황으로 볼 때 내년 2월에 선출되는 안경사협회장은 처칠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용기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생의 길은 대로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거나 밝은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며, 도로표지판도 없는 황무지 같은 바위투성이라고 말한 이는 미국의 정신과의사 M. 스캇 펙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능력이고 용기라고 했다. 안경의 역사는 토인비나 스캇 펙의 말처럼 도전과 용기, 전진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안경사들이 새로 맞이할 2018년이 용기와 사랑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본지 허선

世評

낙시, 신외무물(身外無物)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에는 준수해야 할 과정과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도 인내로 극복해야 하며, 하고 싶은 일에는 정열을 다 쏟지만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결코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일도 취미일 경우 매우 재미가 있는 일이다. 자기가 즐기는 취미 또한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취미는 벌써 로이노제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 취미는 개인의 정서생활에 유익하고 인간관계에서 화기(和氣)와 우의를 증진시켜 주는 매개체이면서 삶의 여백이며 유희유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그러나 절제를 하지 않고 탐닉하게 되면 일시적인 쾌감과 해방감을 느끼나 정신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된다. 사교적인 음주가 알콜 중독이 되고 화투놀이가 도박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병적인 취미다.

이러한 양면적인 것을 부연해 보면 낙시(落時)는 즐거운 일이지만 오히려 살생의 권력을 쥐고 있으며, 바둑 장기는 맑은 놀음이지만 또한 전쟁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이 일을 좋아함은 일을 털어서 한가히 지냄만 못하고 재능이 많음은 무능하여 본성을 다함만 감지 못하다.

덕(德)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주인이다. 재주는 있으면 덕이 없으면 집에 주인이 없고 종이 용사(用事)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놀라지 않으리오.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洪自誠)이 유교의 사상을 즐기기로 하여 노장(禪學)의 설을 받아들여 지은 책인 「채근담(菜根譚)」

에 있는 내용이다.

낙시! 민물에서 시작,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민물로 회귀한다는 것. 바다낙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반드시 예상해 뒀어야 한다. 우연 예기치 않던 사건들을 일컫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시말의 단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짙은 해무(海霧)가 주원인이었지만 '크다'는 갑질의 자만이 빛은 조난사고다. 방기곡경(傍岐曲徑)이라는 샅길과 굽은 길을 말하는 어휘가 있다. 일을 적당히 하고 순탄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역사는 실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의해 서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역사 서술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현재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이며 현재의 한 관념형식인 것이다. 역사생활은 인간들이 각각의 개별적이 전제로서 아니라 집단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고하며 행동함으로써 이뤄지고 있다. 꿈이 발효하고 있는 밤의 여울목에서 낙과(落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우주의 만파식적(萬波息笛)의 피리소리를 듣는다.

/우암 문용서(본지 편집위원)

DAUM에서 옵틱위클리 뉴스검색

DAUM에서 옵틱위클리 최신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옵틱위클리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www.opticweekly.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보나 본지의 구독, 광고에 관한 문의는 02-363-3885번으로 연락바랍니다.

2018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신입생 모집(2년제)

■ 원서접수

구분	정시 모집
전형별	일반, 특별, 정원의외
원서접수	2017. 12. 30(토)~2018. 01.12(금)
면접	.
합격자 발표	2018. 1. 24(수)
합격자 등록	2018. 02. 07(수)~02. 09(금)

■ 원서접수 방법 전화접수

- 전화접수 : TEL 063-530-9250~3, 063-530-9256 / 9237
- 우편접수: (56204)전북 정읍시 정읍사로 509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 '원서제중' 명시

■ 전형방법

-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 특별전형: 안경사 직계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 산업체에 6개월 근무경력자
- 정원의외전형: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농어촌학생지원자

■ 학과 특성

- 22년 전통의 안경광학과
- 매년 높은 취업률
- 매년 높은 국가시험합격률
- 안경사국가시험 전국수석 배출(2005, 2013년)

■ 장학혜택 및 기타

- 가족 장학금 외 다양한 장학금 혜택
- 현대식 기숙사 시설 및 타지역 학생 전원 기숙사 입사 가능
- 입학우수장학금 재학 중 등록금 전액 (고교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당해연도 고교졸업자)

■ 입학상담 : 안경광학과 063-530-9250~3, 063-530-9256 / 9237

Mobile 010-3305-1763 / 010-8642-9460 / 010-3675-9251 / 010-2987-9075 / 010-2025-1314



안경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2005년 · 2013년)

케미렌즈 "매직폼 모바일" 출시 기념 이벤트 케미 원정대 모집

대한민국 안경원 대상, 베트남 공장 견학 및 테마여행

이벤트 품목 매직폼 전품목 MAGIC FORM SERIES MAGIC FORM MOBILE

이벤트 기간 2017년 12월 1일 ~ 2018년 2월 28일(3개월간)

응모 방식



케미렌즈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코너 참여



봉투뒷면 제조일자, 제조번호,
거래처 및 개인정보입력



2018년 3월 초 발표
(개별통보)



자~베트남으로 떠나자!
2018년 4월 17일~20일

일정 안내

발표 | 2018년 3월 초, 30명 추첨(개별통보) ※ 이벤트기간은 주문일 기준으로 적용

출발 | 2018년 4월 17일(화) ~ 20일(금)



1개월용 '클라렌 아이리스'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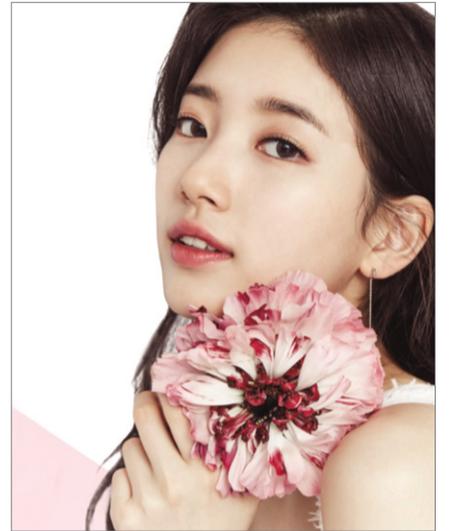
인터로조, 앞선 기술과 다양한 직경·컬러로 소비자 대만족... 취급 안경원을 위한 프로모션도 동시 진행

제품	3001	3002	3301	3302	3304	3001	3002	3301	3302	3304
이미지										
컬러	Brown 3T	Gray 3T	Brown 2T	Gray 2T	Brown 3T	Brown 3T	Gray 3T	Brown 2T	Gray 2T	Brown 3T

(주)인터로조(대표 노시철)에서 지난 10월에 선보인 한 달용 뷰티렌즈 Clalen IRIS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급속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9mm, 13.0mm, 13.3mm 등 총 세 가지의 그래픽 직경에 원톤부터 쓰리톤까지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출시되며 개성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 'ukyung_bea***' 라는 아이디의 블로거

는 클라렌 아이리스의 사용 후기에서 '너무 티 나는 것은 싫고 그렇다고 티 나지 않는 것은 곤란한데, 이번에 나온 클라렌 아이리스는 그래픽 직경이 세 종류이고 컬러도 10가지나 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인터로조 제품인데 착용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지...' 라고 작성했고, 또 다른 'soo14***'는 '완전 안 긴 것처럼 자연스런 렌즈, 착용감은 최상이고 그래픽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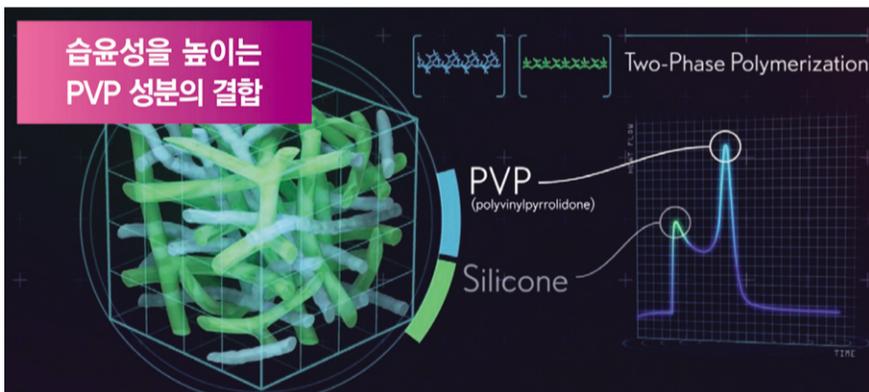
경도 만족스런 수준. 솔직히 원데이는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데 한 달용인 점도 좋고, 정말 맘에 드는 렌즈를 찾았다'고 호평을 남겼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한 달용 뷰티렌즈 Clalen IRIS는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전속모델 수지 씨의 시너지 효과로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사는 취급 안경원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



비자 대상의 1+1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의 080-668-2002

‘한 달간 유쾌하게 사용하세요’

바슈롬 울트라, 수분결합력 뛰어난 PVP성분으로 한 달간 촉촉함 유지



글로벌 콘택트렌즈 기업 (주)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의 한 달용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인 BAUSCH+LOMB ULTRA 렌즈가 임상시험을 통해 편안한 착용감이 최상인 것이 확인되었다. 바슈롬 울트라를 장시간 착용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후 착용감과 건조감을 조사하는 시험에서 착용자의 90%가 피로감 감소는 물론 건조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촉촉한 착용감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것.

바슈롬 교육팀의 한 관계자는 "울트라 인기 원동력은 기존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단점이었던 모듈러스를 크게 낮추면서도 높은 산소 투과성을 유지시키는 울트라의 모이스처 씸(MoistureSeal)

기술에 있다"며 "이 기술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새로운 재질과 제조공정의 결합에 관한 것으로서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차세대를 이끌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기술은 수분결합력이 뛰어난 PVP 성분이 기존 실리콘 하이드로겔과는 다르게 실리콘 자체를 영구적으로 감싸서 한 달간 렌즈의 착용감이 촉촉하고, 이물질 침전이 적어 시야가 깨끗하다"며 "한 달용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인 바슈롬 울트라는 소비자의 눈 건강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국내 콘택트렌즈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070-7167-9922



▲ BAUSCH+LOMB ULTRA는 차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1달용 렌즈로서 이전과는 구분되는 최고의 착용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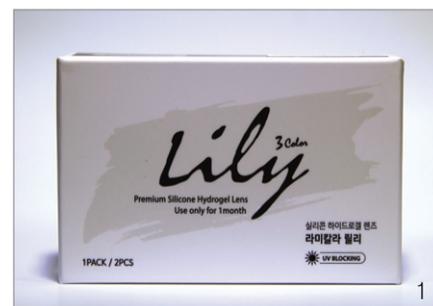
렌즈아이, 고품질 1달용 PB렌즈 출시

가성비 뛰어난 한 달용 병렌즈 '썬업' 첫선... 가격 매력도 국내 최상

새로운 콘택트렌즈 전문체인 렌즈아이에서 PB 브랜드인 sunup을 선보였다. 지난 12월 중순 본격 출시된 렌즈아이의 썬업은 한 달용 컬러 콘택트렌즈로서 그래픽 직경이 일반적인 서클렌즈와 같은 13.3인 것이 특징이다.

병렌즈로 출시되는 썬업에 대해 체인 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썬업은 품질 면에서 어떠한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고품질"이라며 "앞으로 자사는 다양한 하이 퀄리티의 PB제품을 선보여 가맹 안경원의 고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향후에도 교환 주기가 짧고 가격대가 저렴한 PB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일선 안경사 분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라운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썬업의 소비자판매가격은 한 쌍에 5천원으로 향후 중고등학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02)477-0873



▲ 렌즈아이의 다양한 PB제품 라인업. 1달 착용 컬러렌즈 Lily(1), ruby(2), Honey(3)와 6개월 착용 컬러렌즈인 RAMI(4).



꿈의 검안기 "니덱 OPD Scan III"

OPD Scan III는 각막형상과 굴절력 에러, 동공계측을 통해 종합적인 고위수차를 분석하여 시력저하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기기입니다.



미양광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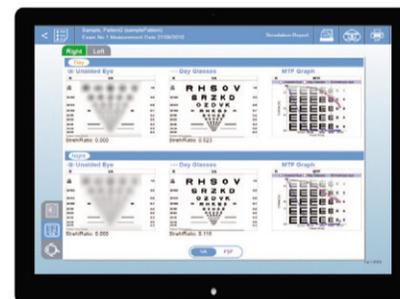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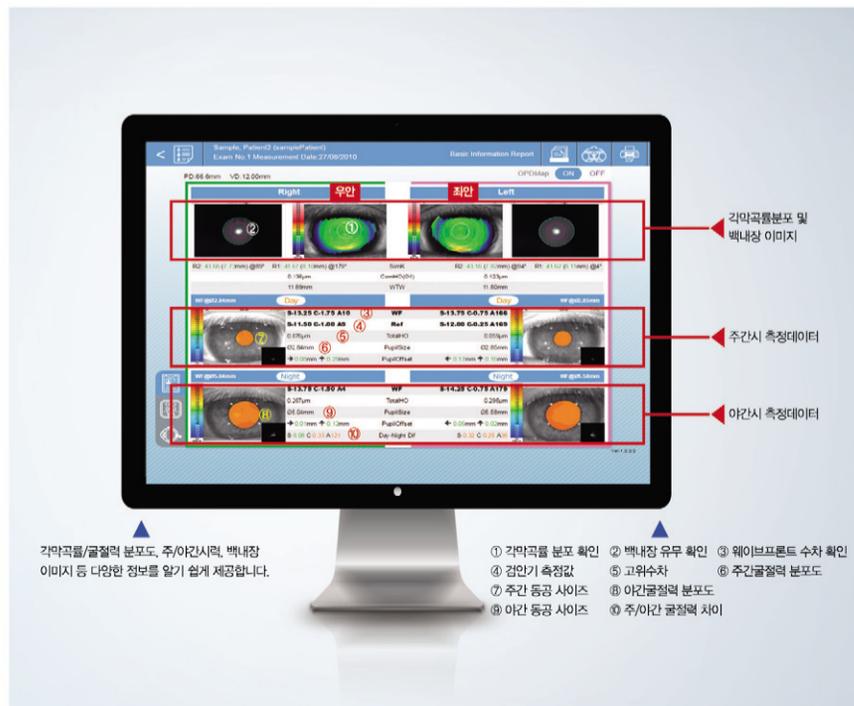
서울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0
www.miyang.kr

TEL 02)779-7400~2
FAX 02)777-4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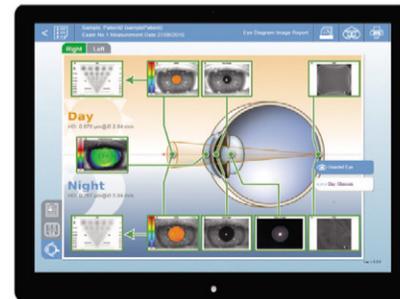
영업이사 김창해 010 4491 4009
기술 부 정민우 010 2465 6621



OPD Scan III는 안경원을 위해 특화된 모델로 일반적인 검안으로 알 수 없는 안질환 또는 시기능 이상을 예측하여 검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나안시력과 주/야간 안경교정, 대비감도 등 교정에 따른 효과를 시력표를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시력과 안경처방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제작된 니덱 OPD Scan III만의 특별한 디스플레이 화면입니다.

서울 / 경기 모아광학 010-8999-7407 월드광학 010-3771-0479 지오광학 010-6430-9909 기린광학 010-3202-9824	강원 / 제주도 포워드광학 010-6267-8105	인천 / 부천 삼성옵티스(동아광학) 010-3702-0602	대전 / 충청남북도 다이아광학 010-8808-6252	대구 / 경상북도 동아메디칼 010-5380-9907	부산 / 경상남도 한솔광학 010-3787-3289	광주 / 전라남북도 빛고을 광학 010-3628-3788
--	---	--	---	--	---	--

움추린 경기에 역발상 아이디어로 가맹률 급상승

무판안경콘택트, '망해가는 안경원 살려드립니다' 광고 이후 가맹률 3배 꺾중... 체인 사업 개시 4개월 만에 19호점 가맹 달성

'시장은 누구의 간섭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한 이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의 저자 아담 스미스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 '품질과 가격'이다. 누구의 인위적인 힘이 없어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품질과 가격에 의해 시장을 자연스럽게 작동시킨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지금 국내 안경업계는 가격경쟁이 최대의 논쟁거리가 된 지 오래이다. 소비자가 먼저 가격파괴를 원한 것은 아니지만 안경원들이 스스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안경원 운영과 유통의 풍부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체인 사업에 뛰어든 무판안경콘택트. 무판의 최진욱 대표는 '망해가는 안경원 살려드립니다'라는 파격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또 하나의 체인 신화를 작성하고 있다.

- ABC렌즈와 안경원에 이어 무판안경콘택트 체인을 시작했습니다. 업종 변경인가요?

“(웃음). 사업 확장도 변경이라면 변경이죠. 우리 무판은 그동안 일회용 콘택트와 안경렌즈를 전국 800여 안경원에 공급하면서 아쉽게 느낀 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설립했습니다. 안경원은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데 고객은 정작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그 결과 안경원마다 진열된 상품이 트렌드에 뒤처지고 재고는 쌓이고, 그렇다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맹비와 월 관리비, 인테리어 교체비와 제품구매 등 만만치 않은 투자금 때문에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시작한 프랜차이즈가 곧 무판입니다. 광고 제목을 '망해가는 안경원 살려드립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요즘 안경원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무판안경콘택트는 지금까지 경험한 유통의 노하우를 안경원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 회사가 설립 반년도 안 되어 성과가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고맙게도 지금은 19호점의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 무판안경콘택트 최진욱 대표

가맹 사업 개시 후 전국에 입소문나며 가맹률 폭등 최 대표 “우린 가격파괴 아닌 수익 제고에 역점들 터”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가입 숫자가 그렇게 많나요?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입소문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판 가입 후 매출이 예전보다 많이 뛰었다는 가맹점이 많습니다. 울산의 모 가맹점은 매출이 400만원대에서 가맹 후 현재는 3배가 넘는 1300만원대의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제품을 많이 구입해 진열장을 채워 매출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가 전혀 없이 매출을 서너 배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 현재 일부 안경원의 '누진렌즈 반값 할인 판매'에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판체인에 우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 '무판이 제2의 U안경 아니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무판은 경쟁력이 뛰어난 체인일 뿐 업계를 파탄시키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수익을 내야 안경원이 운영된다' '수익이 없는 비즈니스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단순히 가격파괴가 아니라 타 안경원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아 경쟁력 있게 판매해 수익을 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무판 체인점들은 충분한 고부가가치를 올리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판은 가격파괴를 일삼는 안경원처럼 모든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가격경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에 우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 '무판이 제2의 U안경 아니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무판은 경쟁력이 뛰어난 체인일 뿐 업계를 파탄시키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수익을 내야 안경원이 운영된다' '수익이 없는 비즈니스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단순히 가격파괴가 아니라 타 안경원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아 경쟁력 있게 판매해 수익을 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무판 체인점들은 충분한 고부가가치를 올리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판은 가격파괴를 일삼는 안경원처럼 모든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가격경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호응으로 내년 60호점 가맹 목표

- 가맹비와 월 관리비가 무료인 것도 장점입니다. 본사 수익은 어떻게 내나요.

“많은 안경사 분들이 관리비나 가맹비도 없이 체인본부가 어디서 수익을 내는지 의아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맹상담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본사는 가맹점이라는 안정적인 판로가 있어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 구입하고, 가맹점은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하니 본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박리다매로 수익을 내는 것이 우리 무판의 운영 방법입니다. 결국 체인 본사가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이익을 내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무판은 강제로 물건을 사입하라는 조항이 없는데도 전국의 가맹점이 많으면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본사로 제품을 주문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서로 윈윈하고 있는 것이죠.”

- 가맹점 사장들의 반응이 좋겠습니다.

“좋죠. 어느 가맹 사장님은 우리에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합니다. 너무 떨어진 매출을 고민하다가 무판 가입 후 20~30대의 고객들이 찾아오니 희망이 보인다고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요즘 가맹 사장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본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고맙다, 희망이 보인다'입니다.”

- 내년까지 목표하는 가맹점 수, 또 가맹점을 위한 프로모션은 무엇인가요?

“현재 서울지역에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 초까지는 30호점, 내년 말경에는 60호점 이상을 예상합니다. 또 우리 무판이 가맹점을 위한 프로모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출을 올리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단 하나의 프로모션입니다. 많은 자본을 투입하면 누구나 잘하겠지만, 우리 무판은 자본 투입이 거의 없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는 일회용 렌즈와 안경렌즈, 또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돈을 들이지 않고 공급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안경업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요즘 일선의 안경원은 불경기과 비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안경업계는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바꿀 것은 고객에 대한 안경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외란된 말이지만 안경원이 저마다 자기만의 컬러를 찾는 것이 불황을 이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무판안경 체인본부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 말까지는 최소 가맹점 60호점을 오픈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지난 4개월간 이룩한 성과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만큼 요즘 무판안경 체인은 희망찬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김태용 기자



▲ 무판안경콘택트 울산 학생점.

프리미엄 칼라콘택트렌즈

LENSEYE



너~ 하나, 나~ 하나
**마음대로
한쌍 더!**

'LENSEYE' 렌즈는 착색부가 눈에 직접 닿지 않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빛을 선사합니다.

한쌍 구매시
한쌍 더!
15,000원~

1+1

실리콘 하이드로겔
칼라렌즈
20,000원~

가격대별 2쌍 선택 (색상/도수/제품 교차 선택 가능)

15,000원

- 프리미엄 칼라렌즈 -

1+1



허니-브라운 / G.DIA 13.1mm



허니-초코 / G.DIA 13.1mm



허니-그레이 / G.DIA 13.1mm



20,000원

- 실리콘 하이드로겔 칼라렌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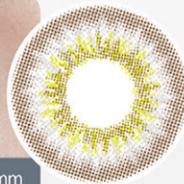
1+1



라미 루비-브라운 / G.DIA 13.4mm



라미 루비-그레이 / G.DIA 13.4mm



25,000원

- 실리콘 하이드로겔 칼라렌즈 -

1+1



라미 루비-브라운 / G.DIA 13.1mm



라미 루비-초코 / G.DIA 13.1mm



라미 루비-그레이 / G.DIA 13.1mm



렌즈아이 02)477-0873

안경랜드(구리 인창동) / 그랑프리(구리) / 그랑프리(중계) / 그랑프리(아셈) / 1001(송내)
고려(아현) / 비추미(영주) / 보이스(제주) / 천리안(증평) / 시연(울진) / 아름다운세상(행당)

LENS

‘변색렌즈는 안경계의 기대주’

에실로코리아, 올해 소비자 대상으로 전방위 캠페인 진행... 시장 확대에 한몫



을 통해 전개한 ‘트랜지션스 체험 캠페인’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 에실로는 지난 6월부터 안경사 대상으로 진행해온 ‘골드바 이벤트’와 ‘해외여행 이벤트’를 오는 31일에 종료돼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착용

(주)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지난 1년간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변색렌즈 Transitions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홍보모델인 배우 차승원 씨를 내세운 일반버스 광고를 시작으로 트랜지션스 변색렌즈의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을 전개해 시장 확대는 물론 안경원의 수익 증대를 가져온 것. 특히는 건강과 편리성을 겸비한 변색렌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이 편리한 변색렌즈는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사는 내년에도 시장 확대를 위해 트랜지션스 캠페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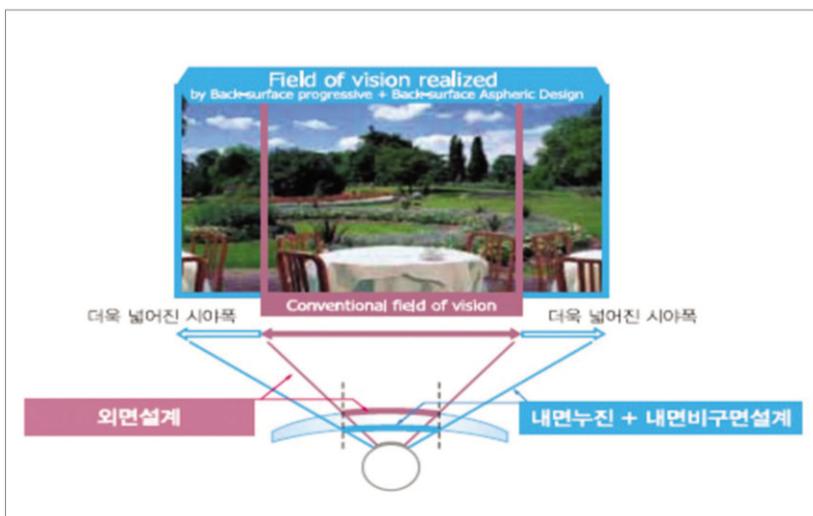
한편 에실로 트랜지션스는 ‘크로미아7 포토크리믹’ 기술이 적용되어 균일한 농도와 색상으로 렌즈가 변색하는 렌즈로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문의 1600-8121

LENS

세이코 인도어는 최고의 실내 렌즈

프리미엄 고객의 만족도 최상... 실내 전용 인도어 등 3종 인기



한국세이코옵티칼(대표 추경의)의 Indoor 렌즈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내 전용렌즈의 대표렌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 제작으로 출시하는 기능성렌즈인 세이코의 인도어 렌즈시리즈가 프리미엄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실내형 렌즈로서 런칭 이후 꾸준히 안경원의 주문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세이코의 실내전용 렌즈는 Indoor PC, Indoor MD(Middle Distance), Indoor LD(Long Distance) 등 3가지 타입으로 이 시리즈는 세이코가 개발한

내면누진+내면비구면 설계에 의해 흔들림과 왜곡을 줄여 자연스러운 시야를 제공하고, 더욱 밝고 선명한 시야와 함께 일반렌즈와 비교했을 때 시야 폭이 35% 확대돼 소비자의 적응이 매우 쉬운 것이 특징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시력 정보에 맞게 0.1 mm 단위로 51가지의 근거리 인셋 지정이 가능한 인도어 시리즈는 도수, 원용 PD, 근업 목적거리를 조합해 시선을 이동할 때도 정확한 시야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문의 02)362-8226

LENS

파트너 안경사와 일본 현지 방문

토카이, 日 본사 공장서 첨단 안경렌즈 생산 견학... 참가 안경사들 대만족



토카이렌즈(주)(대표 장익희)가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파트너십 안경사 14명과 함께 일본 아이치현의 오카자키시에 소재한 토카이렌즈 공장을 방문, 첨단 공장을 견학하며 일본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국내시장에 ‘100% Japan Origin’이라는 타이틀로 최고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토카이렌즈는 소재 개발, 광학 설계, R&D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최고급 안경렌즈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공장 견학을 통해 참가 안경사들에게 우수한 제품력은 물론 토카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심는 기

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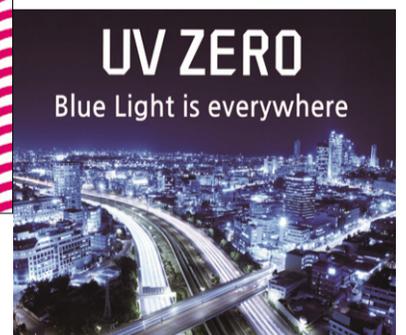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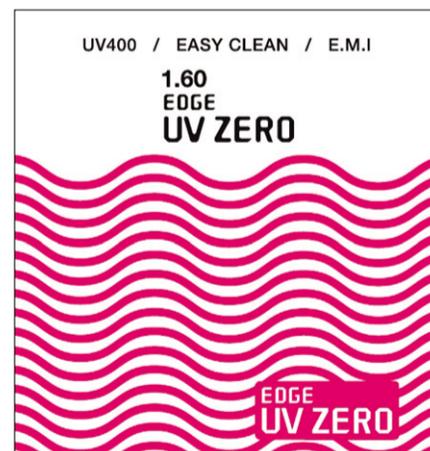
이번 일정에 참가한 한 안경사는 “토카이의 열정과 최상의 생산시설, 또 첨단 독자적인 기술개발 등 시력 보호를 위한 토카이렌즈의 노력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신뢰와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토카이렌즈 마케팅팀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앞으로도 100% 일본제인 고부가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특히 뇌과학 및 아이 헬스케어 전용렌즈를 꾸준히 개발 공급해 파트너십 안경원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2)337-8666

LENS

선명한 ‘UV 제로’... 대표렌즈로 우뚝

하이비전코리아, 전년대비 판매량 향상... 자외선과 청색광 차단하며 선명도 최상



(주)하이비전코리아(대표 황봉욱)의 주력 솔루션인 UV ZERO 시리즈가 전년 대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4월 국내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UV 제로가 자외선과 청색광을 동시에 차단하는 만능 안경렌즈로 높은 인기를 끌은 것. 특히 UV 제로는 적절한 양의 청색광을 차단하면서 일반렌즈처럼 시야의 선명도와 밝기,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해 ‘소비자가 먼저 찾는 안경렌즈’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이비전 마케팅부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UV 제로의 판매량은 지

난해보다 월등하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판매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이상적인 청색광 차단율, 또 우수한 코팅 성능이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원시나 강난시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더 많은 분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업계에서 많은 분들의 요청했던 1.70 UV 제로가 2018년 새해에 출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031)278-1891

물질특허 받은 콘택트... 시장에서 뜨겁게 뜬다!

뉴바이오, 각막건조 개선하는 생체적합적 소재 물질특허 획득... 뷰 시리즈 3종 아이템 젊은 고객에 인기

각막건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생체적합적 소재로 물질특허를 받은 뉴바이오(주)(대표 김숙희)의 콘택트렌즈는 높은 보습력과 함유율, 그리고 산소투과성이 뛰어난 고품질 렌즈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유선형의 엣지 디자인으로 눈물 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공법 특허로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된 품질의 렌즈를 실현한 것이다.
그만큼 뉴바이오는 생산에서 검수, 포장까지 전 공장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품질과 제품 안정성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급 콘택트렌즈 전문 생산기업으로 다음은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품군(群)이다. 문의 02)523-6995

뉴바이오 특약점 기획전

1+1 Monthly 한 팩 구매시 한팩 더!

VIEW-I 25_BROWN 26_GRAY DIA.14.0 / G.D. 13.0	MOISTURE VIEW-II 27_BROWN 28_GRAY DIA.14.0 / G.D. 13.0	SILICONE ARTRIC +아르릭2_BROWN +아르릭2_GOLD +아르릭2_GRAY DIA.14.0 / G.D. 13.2
ARTRIC 86 20_BROWN 21_PINK DIA.14.0 / G.D. 12.6	MOISTURE PLUS+ UV LENS BROWN CHECO DIA.14.2 / G.D. 13.4	PLUS+ Silicone BLUE BROWN GRAY DIA.14.0 / G.D. 13.0

※일반 안경원도 공급 가능

1+2 One Day 한 팩 구매시 두팩 더!

24시간 촉촉
산소투과성이 뛰어난 고품질 렌즈

ARTRIC +아르릭1_Black +아르릭2_Brown +아르릭3_Brown +아르릭4_Gray +아르릭5_Blue +아르릭6_Brown +아르릭7_Gray DIA.14.0 / G.D. 13.1	ARTRIC MOISTURE +아르릭8_BROWN +아르릭9_BROWN DIA.14.0 / G.D. 12.5 DIA.14.0 / G.D. 13.0	ARTRIC SILICONE +아르릭10_BROWN +아르릭11_GOLD +아르릭12_GRAY +아르릭12_GRAY DIA.14.0 / G.D. 13.2
---	--	--

※특약점 공급



◀ **VIEW-II Moisture**

신제품 한 달용 모이스처 렌즈인 뷰-II는 그래픽 직경 13.0의 브라운, 그레이 컬러를 가진 1팩 2개입으로 출시됐다. 모이스처 렌즈의 뛰어난 보습력으로 각막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브랜드도 신제품 런칭기념의 1+1 기획전 행사가 진행 중이다.



▶ **SILICONE ARTRIC**

신제품 한 달용 실리콘렌즈인 실리콘 아트릭은 그래픽 직경 13.2의 브라운, 골드 그레이 컬러를 가진 1팩 3개입으로 구성돼 있다. 역시 특약점과 일반 안경원에 공급되는 제품으로 신제품 런칭 1+1 기획전 행사가 진행 중이다.



◀ **VIEW-I**

신제품 한 달용 렌즈로써 1팩 2개입, 그래픽 직경 13.0의 브라운, 그레이 컬러를 갖고 있다. 뉴바이오 특약점과 일반 안경원에 공급되고 있으며 신제품 런칭기념으로 1+1 기획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ARTRIC 1DAY**

원데이 컬러렌즈로써 그래픽 직경은 12.6에서 13.1까지이다. 컬러는 브라운, 그레이, 블루, 블랙 등 총 7종으로 다양하며, 뉴바이오 특약점에만 공급되는 제품으로 1+2 기획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Anniversary ceremony for UNICOS Building !



(무이자 36개월 VAT 포함)

에 만나 보세요.

UNIT & TABLE / URK-700 / UDR-800 / ULC-800S (24인치, 무편광) / 렌즈셋트(고급형)(검안경 58.62.66 포함)

검안 장비 풀셋트에 렌즈셋트를 한번에 구입



The Fast Wireless Network System

